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 10곳중 7곳

"대기업 파업으로 조업 차질"

100곳 조사…16%는 "부도 당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10곳 중 7곳이 조업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대기업 파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7월27일~8월6일)를 벌인 결과 응답업체의 94%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의 경우 응답업체 100%가 심각함을 토로했다.

대기업 파업 때문에 '조업단축'(57.4%)과 '조업중단'(12.9%) 등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은 업체도 70.3%에 달했다. 또 응답업체 가운데 15.8%가 대기업 파업으로 인해 부도를 당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파업과 협력업체 채산성과의 상관관계에 관련, '매우 크다'(48%)와 '크다'(39%)고 답해 대기업 파업으로 인한 임금인상→협력업체 납품단가 인하→협력업체 채산성 악화→제품경쟁력 저하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대응책은 '거래처 다변화'(58.0%), '유·무급 휴가실시'(41.0%), '잔업·특근 중단'(35.0%) 순이었으며 '특별한 대응책 없음'도 28.0%에 달했다.

대기업 파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50.4%) ▲지역이미지 하락으로 지자체 사업추진의 어려움 가중(46.5%) ▲장기적 고용감소 초래(38.6%) ▲소비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28.7%) ▲투자마인드 감소(20.8%)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파업이후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원가절감,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파업피해를 협력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파업자제와 더불어 관련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노조 오늘 또 파업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주 임금교섭 결렬과 함께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10일 소하리 공장에서 사측과 가진 9차 임금교섭 직후 13일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오전 10시30분, 오후 10시30분부터 각각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13일 사측과 10차 본교섭을 가진 뒤 교섭결과에 따라 이후 파업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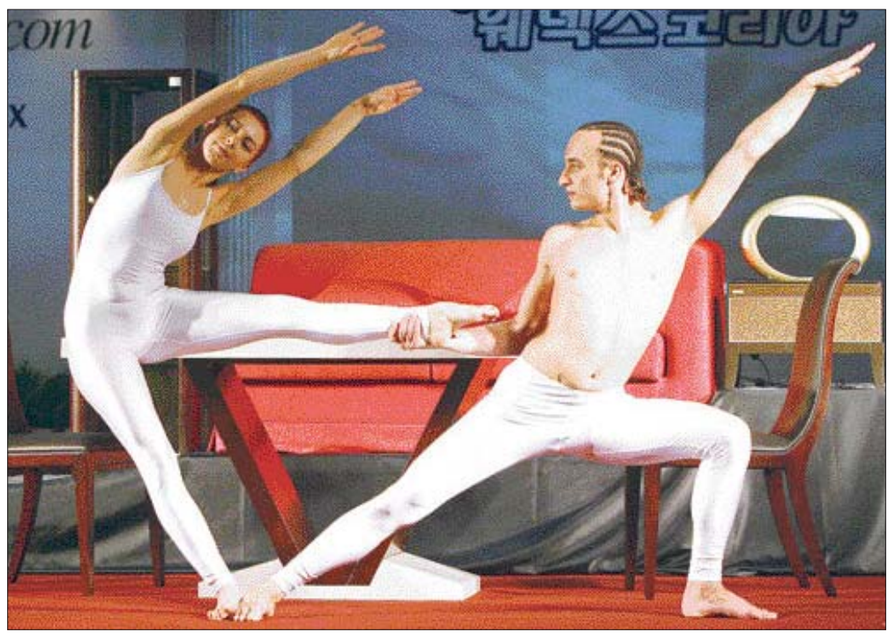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액도 크게 늘고 있다. 광주공장의 경우 6~7월 차량손실대수 7700여대, 손실액 1천190억원에서 8천여대 1천24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아차 전체는 2만4천여대, 3천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측 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조가 파업사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과 지역경제단체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파업만 일삼는 기아차 노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노조냐"면서 "기아차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장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8차례 본교섭을 벌여 지난달 24일 임금 7만5천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었으나,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3.47%로 부결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가구와 무용이 만나다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 '리바트, 올해의 가구 디자인 트렌드 발표회'에서 무용수들이 탁자와 의자를 비롯한 가구의 선(線)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택연금 첫 수령자 3명 나왔다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만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주택연금 수령자가 나왔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역모기지 제도 시행이후 처음 92세인 G씨가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단독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G씨의 집은 시가 6천500만원으로 G씨는 이달부터 매달 65만원씩 평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또 76세인 A씨는 5천800만원의 집을 담보로 매달 27만원을, 67세인 B씨는 8천만원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25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을 주관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역모기지 시행 한달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23명이 상담을 마쳤으며 이가운데 9명이 실제 신청을 했으나 3명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졌다.

역모기지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가입당시 기준)이면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1688-8114,062-233-2515)로 신청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새농민회 2007년 연찬회

(사)전국새농민회 전남도회(회장 박원종)는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영암군민회관에서 '2007년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 회원들은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선도농업인이 될 것을 결의했다. 또 연찬회에서는 우수회원 등에 대한 공로·감사패가 주어졌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국새농민회장 공로패=박필수(구례군회원)·김흥만(목포신안시군회장) ▲농협중앙회장 감사패=김일태(영암군수) ▲전남도지사 표창장=윤기현(강진군회장)·김태성(영암군회 총무)·김병섭(화순군회 총무) ▲전남농협본부장 표창패=정충남(여수시회원)·김영중(장흥군회 총무)·조호현(영암군회 전부회장)·김경길(해남군회장) ▲영암군수 감사패=박원종(전남도회장) ▲전남새농민회장 감사패=최석진(전남농협 팀장)·강대형(전남농협 과장)·이영만(전남도 계장)·민종필(영암군)·(사)전남새농민회 함평군회.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 태풍·폭우 피해 업체당 30억까지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지난 4일~7일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폭우에 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재해복구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별도편성) 및 소상공인자금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복구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업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재해 복구지원자금은 연리 4.4%(일반 4.75%)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한 휴·폐업 또는 연체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토공 광주 양동 사옥 매각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시 서구 양동 사옥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대상 부지와 건물은 각각 2천565㎡, 1천549㎡ 규모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본관과 별동 1동으로 구성돼 있다. 매각예정가격은 35억4천449만5천원이며,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신청접수일은 13일이며, 14일 오전 10시에 입찰이 실시된다. 문의 062-360-3122.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